

'두산 레지던시 뉴욕' 그 성과를 공개합니다

[뉴스시스] 2012 년 07 월 19 일(목) 오전 06:11
| 공유하기

- FacebookTwitter 가  가  이메일 | 프린트



【서울=뉴스시스】 유상우 기자 = 서울 종로구 연지동 두산갤러리가 재개관을 기념해 두산 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들의 그룹전을 선보인다.'리-오프닝 두산 갤러리 서울'은 2009 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산 레지던시 뉴욕의 성과를 전하는 자리다.

두산갤러리는 2009 년 미국 뉴욕 첼시에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열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두산 레지던시 뉴욕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3 명씩 모두 6 명의 작가를 뽑아 지원하고 있다. 두산갤러리 전시 기회와 6 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작업실은 물론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아티스트 토크 등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이번 전시에는 선명한 색채로 익숙한 자연과 도시 공간을 화면 속에서 나누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민성식의 작품을 비롯해 사진을 오려 붙여 실제 크기와 같게 만든 사진 조각의 권오상, 차가운 금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최우람, 사진·회화·영상 등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다룬 김기라의 작품이 나왔다.

가는 알루미늄 선을 이용해 연속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드로잉처럼 표현한 김인배, 사진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장르적 확장을 시도한 백승우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김인숙·박윤영·성낙희·이동욱·이주요·이형구·정수진·홍경택 등 모두 14 명이 참여했다.

한편, 두산갤러리는 기존의 132㎡인 전시공간을 198 ㎡로 확장했다. 전시는
8 월 19 일까지다. 02-708-5050

sw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상우(기자)